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 고위험 병원체 연구시설 인증

모든 고병원성 AI·브루셀라 등 국가 재난형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위한 연구 가능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소장 한상섭)가 대형 동물에게 발생하는 고위험 병원체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연구할 수 있는 '대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하 ABL-3)'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받았다.

대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을 받은 것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국내 처음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인증과 지난해 말 중소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을 받은 바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동물에서 대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병원성 AI나 브루셀라 등 국가 재난형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국내를 강타한 메르스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사람과 동물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원체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특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이번 인증을 통해 고위험 모든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인수공통전염병에서의 아시아 최고 권위를 갖게 됐다.

이번 대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대형 동물에 대한 브루셀라 연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소장은 "이번 대동물 연구시설 인증을 통해 연구소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 분야에 독보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및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와 인수공통전염병 분야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대형 동물에게 발생하는 고위험 병원체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연구할 수 있는 '대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하 ABL-3)'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받았다. 사진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행복 공동체 육성으로 따뜻한 도시 만든다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선정된 67개의 '온두레' 공동체 회원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주민학교'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67개 온두레 공동체와 전주시 간의 신뢰와 호혜정신에 입각한 협약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동체들이 활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전문가 연계지원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서 임경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공동체 사업의 의의와 확장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

해도를 높였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따뜻한 사회를 꾸꾸는 공동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대시민 공모를 통해 총116건의 사업을 접수받아 서류, 면접, 현장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3월에 총67건을 2017년도 온두레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공동체들은 마을 벽화골목 조성, 생태하천가꾸기 등 주민주도의 환경개선, 마을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신문 제작, 책 읽는 마을 조성, 정기적 마을장터·카페운영을 통한 마을소통 공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전주시 곳곳에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대 박병모 교수팀, 분화·조경용 나리 개발

오늘 평가회에서 나팔나리 5개·분화용 아시아틱 나리 15개 품종 전시

전북대학교 박병모 교수팀(농생대 생명자원융합학과)과 한국농수산대학 송천영 교수팀이 개발해 새롭게 육성한 분화 및 조경용 나리가 연구기관 관계자 및 일반 농가에 선보여진다.



박병모 교수



꽃든씨드프로젝트(GSP) 원예종자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분화 및 조경용 나리 품종육성사업(연구책임자 박병모 전북대 교수)' 평가회가 오늘 오후 3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리는 것.

이번 평가회에서는 새롭게 육성한 나팔나리 5개 품종과 분화용 아시아틱 나리 15개 품종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생산 능가 및 소비자들이 한자리에서 새로 육성된 품종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농가에 조기 보급해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보여지는 분화 및 조경용 나리는 전북대 박병모 교수팀과 한국농수산대학 송천영 교수팀(화훼학과)이 2000년부터 시판되는 품종을 수집

해 7세대까지 자가 수정을 통해 계통을 육성한 것이다.

이후 2015년에 고정된 계통간의 일대 잡종 중에서 생장 및 개화 특성이 우수한 5개 품종을 개발했다.

분화용 아시아틱 나리 역시 품종을 수집하여 4~5세대까지 계통 육성 후 2013년 교배조합 중에서 우수한 15개 품종을 2015년에 개발하고 내병성 및 내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지에서 재배 후 2017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품종은 생산농가, 종묘회사 및 소비자 등으로부터 품질을 최종 평

가하여 우수한 것은 품종 등록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전북대 박병모 교수는 "국내에 Tiny 시리즈를 포함한 10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분화 및 조경용 나리는 네덜란드 육성 품종으로 국내에 소모되는 구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입 구근은 가격이 비싸고 생산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시장 보급 및 해외 틈새시장을 겨냥해 수출한다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시스템 6월부터 시행

전주시는 집 전하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365일 24시간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사전테스트 및 홍보 등 시스템 가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6월 정기분 자동 차세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은행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장년층과 노인층 등 일부 납세자의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등 절차가 복잡해 온라인 납부 방식 이용에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1588-2311) 한통으로 지방세 부과현황 조회 및 납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바쁜 일상생활로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장년층 납세자들이 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징수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기자

혁신도시 입주민들 위한 황방산 등산로 정비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황방산 등산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2,000만원을 투입해 서고사 부근 황방산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혁신도시와 민성지구에서 황방산으로 진입하는 주요 등산로인 서고사 부근 등산로 180m 구간의 목재계단 및 로프형 난간 등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 및 보강, 우천

시 등산로 유실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이다.

황방산 등산로가 정비되면, 혁신도시 입주민들과 민성지구 입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져 황방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국립순창자연휴양림,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